

# 뚜껑 열린 대선자금 흔들리는 대선구도

## 興, '최시중 폭탄' 긴장 속 파장 촉각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은 당혹해 하면서도 거리 두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대선자금 수수로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 역시 불똥을 피할 수 없어 4·11 총선 승리를 통해 자리를 잡아놓은 대선구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 유통센터 사업자로부터 2005~2008년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다"라며 "받은 돈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시중 약재 '여당 거리 두기' = 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지자 여권 전체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한때 대통령 멘토로 불릴 만큼 그의 정치적 비중이 남다른데, 지난 대선과정과 현 정부에서 그가 한 역할을 감안할 때 검찰수사의 한배에 따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대선자금 수수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 불똥이 청와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겨우 자리를 잡아놓은 대선구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구(舊)주류 내부의 사안"이라고 서둘러 차단막을 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친박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친이계의 과거사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강원도를 방문한 박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없이 책임질 일을 (저야)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MB정부와의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파장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긴

장감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친박 내부 불협화음=여권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친박 내부의 기류가 복잡하다. 비주류 당시 한목소리를 내던 때와 달리 각종 사안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물론 측근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알력도 감지되고 있다.

이번 총선을 거처며 영남, 그중에서도 TK(대구·경북) 의원들이 확고하게 주류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과 개혁성향 의원 및 비상대책위 출신 인사들이 서로 부딪히는 형국이다.

친박 세력재편 과정에서 입지가 위축된 개혁 성향의 유승민 의원 등은 최근 작심한 듯 친박 내부를 향한 비관 발언을 쏟아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를 고리로 친박 경제계 인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발언 역시 영남 실세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차기 여의도 권력 빅3 라인업 문제도 다소 엉켜 있는 양상이다. 특징인이 특징인을 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대권도전 고민 중”

### 박준영 지사 '대선 호남 역할론' ... 김메이커 나설 수도

호남권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돼온 박준영 전남지사가 24일 "대선에서의 호남 역할론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대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그러면서 "호남+α"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좋은 후보가 나오면 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대권 직접 도전이나 김메이커로서의 역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이날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교량인 '이순신대교' 건설공사 현장 방문차 광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박 지사는 "도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과 향우들의 바램은 호남정치의 와해와 호남발(發) 대선 주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이 이념적

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우려감에서 모종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직을 운명적으로 여겨왔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작은 농장을 운영 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대선 출마를 얘기하는 이들이 많아 솔직히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태도는 견지했다. 그는 "지역민의 열망은 이해가 가

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여수박람회와 F1, 국제농업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등 수년간 공들여온 4대 국제행사 등 할 일도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안에 정권 교체할 정치적 자산이 있는지, 소위 '호남+α'에 대한 대안, 지역구도 탈피 등 짚어 볼 문제가 적지 않다"며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좋은 후보가 나오면 미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적인 표결 집력을 지닌 당내 유력주자가 나올 경우 지지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돼 직접 출마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정 후보 밀어주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이것이 수소자동차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 'SWEET 2012'(Solar, Wind&Earth Energy Trade Fair 2012)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전시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이 전시는 국내외 10개국에서 190개 업체가 530개 부스를 운영하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靑, 잇단 약재에 '식물 정권' 위기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외부에서 금품을 받아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는 24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웠던 비중있는 인물인데다 자금의 용처를 2007년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밝혔다. 대선에서 대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선불리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대가성이 드러나고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대선 캠프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가 대선 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 차원'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대선 캠프에 유입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며 "우리는 국정에 충실하면서 당당히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오히려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에 이어 왕차관으로

군림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실세 가운데 한 명인 광승준(52)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마저 터져 나오자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잇단 대형 약재로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권 말기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려해도 대형 약재가 연일 터지고 있어 심안한다"며 "정권 말기라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원 "MB정권 불행한 종말로 가고 있다"

## "검찰, 대선자금 수사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시인과 관련,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최 전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돈을 받아

온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곧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관계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구체적인 대선자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들은 상당한 정치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국민이 경악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집권 말기로 가면서, 영포대군, 방통대군, 왕차관 등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과 최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있다"며 "참으로 이명박 정권이 불행한 종말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중반입니다'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없는 후보"라며 "박정희 유신독재의 공동책임자이며 이명박 정부 실정, 비리의 공동책임자인데다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정치로 필요할 때만 메시지 관리를 통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검증을 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아빠! 원자력이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 에너지래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안전에너지, 원자력

- ① 30년 운용노하우 -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이후, 30여 년간 무사고 운영
- ② 빈틈없는 완벽설계 - 다섯겹 방호벽으로 방사선 완벽 차단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
- ③ 유능한 전문 인력 - 원자력 전문교육기관에서 정교교육 실시 /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훈련

한국수력원자력주 KPS 한전KPS(주) 영광 원자력본부 영광 사업처

**빛의만평** - 김중두

저것만 보면 자다가도 웃음...

최시중